

[기획]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4차 회의

광주일보 독자위원회(위원장 문병훈) 제 4차 회의가 지난 12일 오후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문병훈(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윤민자(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윤영현(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이수애(목포대 사회과학부 교수)·임형철(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김미희(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 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독자위원회 위원들은 광주일보 지면에 대해 비판과 조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선거보도, 양적·질적 균형 필요하다”

지방신문 답게 지역기사 비중 더욱 확대해야 '하이틴 공부합시다' 학습정보제공 높이 평가 홈페이지 독자위원회 공간 만들어 활성화 했으면

▲문병훈=독자위원회의 운영 취지가 지면 보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좋은 신문은 만드는 것인 만큼 최소 2개월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열려야 한다. 회의가 너무 늦어지면 양이 많아져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가 없다.

▲윤민자=광주일보가 보수화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이름을 걸고 나오는 신문이라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갈수록 보수적 경향이 짙다.

▲김미희=날마다 지면을 채우기 위해 기사를 생산하는 게 힘든 줄 안다. 하지만 중앙지나 연합뉴스에 게재된 기사를 그대로 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소한 광주·전남지역의 뉴스는 심층 취재해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독자가 원하는 내용을 많이 게재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기사도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말고 기사와 사진, 지면 배치 등 모든 면에서 균형있게 보도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자위원들이 지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문병훈=지방선거기간 중 신문이 특정 정당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냄새가 풍긴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공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사진의 경우 어느 정당에 대해서는 환호하고 웃는 장면을 게재하는가 하면 다른 정당은 침울한 분위기의 사진을 실는 일이 있다. 지면도 일부 정당에 많은 면

을 할애하는 것 같다. 기사화하면서 질적·양적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

또 지나치게 제목에 영어를 많이 쓴다. 지난 8일자 1면 '선거법 해프닝'이라는 제목의 경우 영어외에는 대안이 없다. 또 4월 17일자 14면 '다도해 속으로 GO~GO' 제목이 있었는데 '빠져보시다' 등 우리말 표현도 있지 않은가. 지난 4월 20일자 '디지털 디바이드 없애자'는 제목도 '정보 격차'라는 말을 밑에 쓰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제목에 영어를 남발하는 것 같다.

영어 남발...우리말표현 이쉽다

▲윤영현=고유가와 환율로 어려운 기업들에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가는 기업들의 사례를 실어 다른 기업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또 노사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탄탄히 갖춰 나가는 기업들의 사례도 발굴해 기사로 실어준다면 기업 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임형철=광주일보의 'People & Life'를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신문이라면 광주·전남지역 사람들 소식을 다루는 것이 맞지 않나. 하지만 광주일보에는 중앙만 있을뿐 지방의 기사는 없거나 작게 취급되고 있다. 1면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 지역 현안을 과감하게 1면에 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병훈='하이틴 공부합시다'는 학생들



광주일보 독자위원회 제 4차 회의가 12일 오후 열렸다. 좌로부터 김동영 본사 편집국 부국장·윤영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김미희 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간사·문병훈 광주전남민주언론 대표·이수애 목포대 사회과학부 교수·임형철 광주전남녹색연합대표·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장.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을 위한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아주 유용한 지면이라 평가하고 싶다. 반면 지난 9일자 '함평 다이내스티CC 그랜드 오픈 1주년, 회원 친선 골프대회 성료' 기사는 심한 편이다. 골프장이 광주일보 소속인 것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골프대회까지 크게 기사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난 4일자 22면 '담양 다이내스티 CC 6월 코스투어' 관련 기사도 마찬가지다.

물론 기사로 인해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사를 통해 100원의 효과를 본다면 독자가 등을 돌리면서 결과적으로 200원을 손해보는 일이다. 공정성 측면에서 좋은 말을 결코 들을 수 없다.

▲이수애=지역의 시사깊은 것까지 전해주는 지역 신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작되지만 지방신문인 만큼 지역 비중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10개가 넘는 광주지역 신문 중에서 확실하게 차별화돼야 한다. 외국의 경우 아주 사소한 지역의 소식까지 게재하는 추세다. 주 독자나 병독자나를 떠나 광주일보만의 냄새가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임형철=광주시와 전남도 등 행정기관의 홍보 기사를 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내용도 과감하게 기사화해야 하는 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광주전 재개발 문제도 너무 행정기관에 호의적이다.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길 바란다. 최소한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광주일보는 역사가 오래됐고 지방신문 중에서는 독자가 가장 많다. 기대를 갖고 있으니 이런 말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으면 비판도 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지방선거 보도의 경우 해당 후보가 소개와 공약을 한 면에 배치하면 독자들이 기사를 오래 놓고 비

고하며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 면에 안된다면 여러 차례 나눠서 지면에 반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그들이 내놓은 공약을 검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현안 심층분석 필요

▲문병훈=매일경제의 '돌발 질문' 것처럼 선거 보도에서도 평범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친숙한 느낌을 줄 것 같다. 유명 인사보다 보통사람들의 선택기준 등을 실는 것이다. 또 기사의 내용 자체도 보수적인데 편집 틀도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지난 12일자 7면 '노래방 도우미 13가지 수직' 기사는 왜 보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노래방 도우미는 부정적 의미가 강하데 노래방 업주가 메모해놓은 것을 그렇게 크게 기사화해서 무엇을 알렸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김미희=소비자 문제를 취급하다 보니 기자들과 하루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너무 이슈에 집착하는 것 같다. 그때 그때 이슈에 접근, 기사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나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문병훈=독자와 언론의 시각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문은 사회·정치적 변화와 시민의 변화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지를 신문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미희=초등학생들이 격주로 쉬는 '볼토'에 가볼만한 장소나 행사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는데 광주일보가 이들을 위한 행사 소식과 정보를 보다 폭넓게 고정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정리=김지욱기자 dok2000@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education, and local services. Advertisements include '상동권', '수표', '대한민국', '베트남',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대지부동산', '신화부동산', and others.